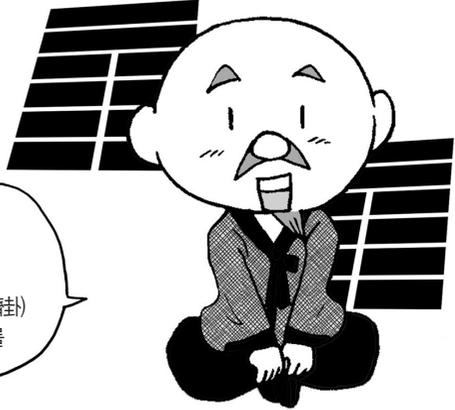


풍지관 (風地觀)



주역 64괘는 상하권으로 나뉘어 기록되어 있는데 30번째 리괘(離卦)까지가 상권(上卷)으로 천지의 이치를 다루고, 31번째 함괘(咸卦)에서 마지막 미제괘(未濟卦)까지는 하권(下卷)으로 인간사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된 괘의 순서가 또한 의미가 있으니 그 순서를 풀어놓은 것이 서괘전(序卦傳)입니다.

19. 지태음
20. 풍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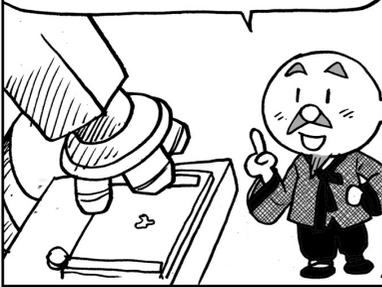
거기에 따르면 정성을 다해 크게 된 19번째 지택임(臨) 괘 뒤에 관찰하다는 의미의 20번째 풍지관(觀) 괘를 두었습니다. 서괘전의 설명처럼 “사물은 크게 된 이후에 볼 수 있(物大然後可觀)” 때문입니다.

안 보인다.
보인다.

그런데 사물이 '크게 되는 것'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대상인 사물이 커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물을 보는 눈이 세밀해지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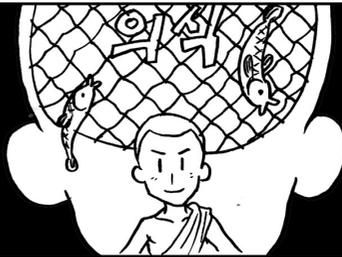
현미경을 통하면 보이지 않던 작은 사물도 크게 보이는 것과 같지요. 그러므로 '물대연후(物大然後)'라는 말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내면을 관찰하는 것에도 내면을 보는 '나'가 세밀해지면 '대상'은 아주 잘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내면의 대상'이라는 것은 감정이나 생각, 의식의 흐름, 내적인 느낌 등을 말하지요.



이것들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커진다'는 것은 달리 말해 미세한 느낌이나 생각까지도 관찰해낼 수 있을 만큼 의식의 그물이 아주 촘촘해졌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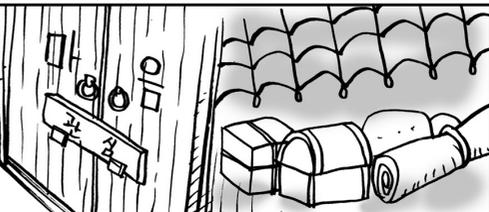
그러데 어떻게 하면 의식의 그물을 세밀하게 할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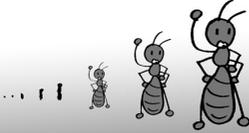
내면의 대상들에 주의를 계속 주는 연습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것을 관심(關心)이라 합니다. 마음(心)에 주의를 빚장을 걸러(關) 어느 한 가지에 묶어 두는 것입니다. 이 내면을 관찰하는 것에도 내면을 보는 '나'가 세밀해지면 '대상'은 아주 잘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내면의 대상'이라는 것은 감정이나 생각, 의식의 흐름, 내적인 느낌을 말하지요.



흥미롭게도 그것은 관심(觀心), 즉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에도 사용됩니다. 내면의 사건들에 관심을 두면 점차 의식의 그물은 섬세해져서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관(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상'이 커지거나 아니면 '나'가 세밀해지면 됩니다.



풍지관(風地觀)은 땅(地) 위에 바람(風)이 부는 형상입니다. 바람은 땅 위의 모든 만물을 건드리며 불어갑니다. 아무리 작은 겨자씨 사이로도 불어 들어갈 수 있고, 아주 거대한 히말라야 산맥들 위로도 불며 모두를 살피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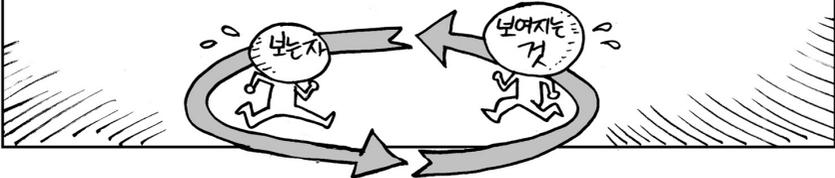
이렇게 세상 만물 위를 지나가며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 없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렇게 바람은 모두를 보고 관(觀)할 수 있습니다.



'觀'이라는 한자에는 '본다'와 '보여진다'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관찰'이라 하면 내가 '보는 것'이라 여기지만 사실 우주자연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종종 잊습니다. 보는 것과 보여주는 것은 관(觀)의 두 가지 측면입니다.



'보는 자'가 없으면 이치가 그저 '보여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진실은 보는 자와 보여지는 것이 따로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의 전체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인(聖人)은 바로 이렇게 맑은 내면의 스크린에 비추어진 우주자연의 질서(神道)를 보고 인류에 전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은 성인에게 천도(天道)를 보여줍니다. 성인에게엔 '나'가 없으므로 그의 내면이 왜곡되지 않아 천도가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것을 대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하여 보여주면 대중은 그에 따릅니다(聖人以神道設教, 而天下服矣).



이렇게 최상승의 것으로는 우주가 보여주는 천도가 있고, 그 아래 그것을 잘 번역해내는 성인이 있으며, 그 성인을 통해 보는 소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주는 늘 보여주고 있지만 눈 밝은 이 (사물을 크게 보는 이)만이 그것을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눈이 밝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으로 얼룩진 '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전(傳)에서는 "성인은 그 묘한 작용을 체득해서 바른 정사와 가르침을 베풀다(聖人契體其妙用 設爲政教)"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을 숙이는 경건한 자세와 혼신을 다하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숙이지 못한다는 것은 과거로 구성된 '나'라는 안경이 자신을 주장하며 그를 통해 왜곡되어 봄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자기라고 믿는 그것이 과거로 구성된 그림자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를 숙이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관(觀)의 과사에, “관(觀)한다는 것은, 제사를 지낼 때 ‘정성을 다해 손을 씻고(盥) 아직 제물을 올리기 전(不薦)’의 경건함을 가지면, 사람들이 그에게 믿음을 두어 우러러 볼 것이다(觀而不薦 有孚若)”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관(觀)할 때의 자세로, 자신을 숙이고 심신을 정화하는 정성이 필요함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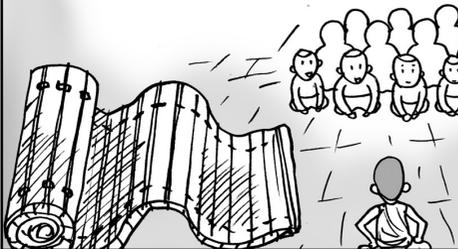
어쨌든 성인은 에너지의 묘용(妙用), 즉 없는 듯하면서 만상을 흐르고 있는 그것을 관찰하고 대중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여 외적세계에도 내적 세계에서도 운행되고 있는 에너지의 묘한 작용을 보게되면 곧 변화한다(觀而化)고 하였습니다.



즉, 관(觀)의 핵심은 ‘사물이 큰 이후에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변화(化)를 이루는 핵심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觀) 곧 변하게(化) 됩니다.’



이것을 단(象)에서는 “하늘의 신묘한 도를 관찰하여 보니 사시가 어긋남이 없고, 성인은 이렇게 관찰한 신묘한 도를 통해 가르침을 베풀니 천하의 백성이 복종한다(觀天之神道 而四時不 聖人以神道設教 而天下服矣)”라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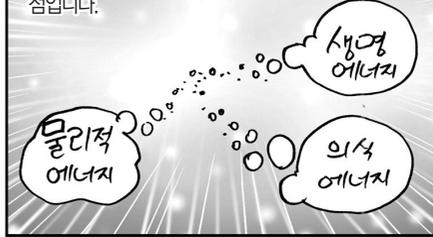
이렇게 가장 근본적인 ‘觀’을 이루게 하는 하늘의 신묘한 도(天之神道)를 직관(直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만상을 흐르는 ‘에너지의 묘용(妙用)’을 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질세계에서는 물리적 에너지요, 살아있는 것들에서는 생명의 에너지이며, 의식 있는 것들에서는 의식 에너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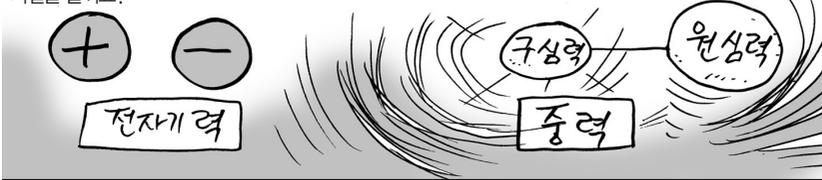
그런데 이 세 종류의 에너지는 양상이 다를 뿐 모두 같은 근원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그 발현 방식도 같다는 것을 아 니까? 바로 차이를 통한 불균형 또는 '극성'을 기본으로 하는 운동이라는 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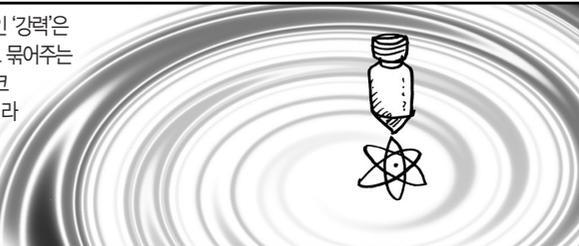
이 요한 에너지의 물리적 측면은 핵분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막강한 핵폭탄은 원자핵 내의 결합에 지를 깨내어 쓰는 것입니다. 우주에는 강력, 약력, 전자기력, 중력이라는 네 가지 힘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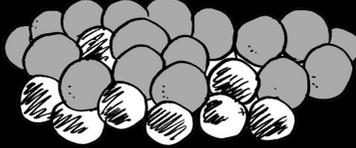
전자기력은 +와 -라는 극성을, 중력은 구심력과 원심력이라는 극성을 보입니다. 이들은 모두 극성을 통해 에너지를 발현시킵니다. 그런데 그와는 달리 +와 +를 묶는 힘도 역시 이 극성에 근원을 두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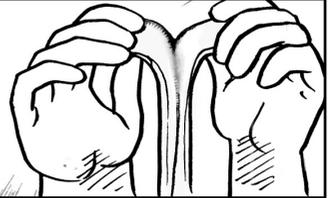
네 가지 힘중 가장 강력한 힘인 '강력'은 원자 핵 속의 양성자들을 서로 묶어주는 힘입니다. 즉, 그 에너지는 결코 양성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성자를 묶고 있는 미지의 힘에 있는 것이지요. 이 힘은 막대하여 원자 폭탄의 힘이 여기서 나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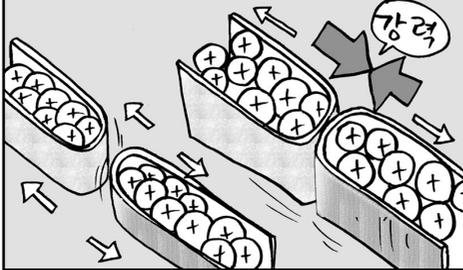
양성자는 모두 전기적으로 양성(+)을 띠기에 가까이 갈수록 서로를 밀쳐내려는 힘을 보입니다. 그러나 핵 속에서와 같이 양성자들이 아주 가까이 붙여놓으면 갑자기 서로를 밀치는 전자기력보다 더 강한 힘인 강력(強力)이 이 둘을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힘은 마치 벨크로가 서로 접촉하면 강하게 달라붙어 떼어내기 힘든 것과 같습니다. 벨크로의 묶는 힘은 볼록 부분과 깨어진 오목 부분이라는 양극성이 서로 얽힌 데서 옵니다. 즉 두 부분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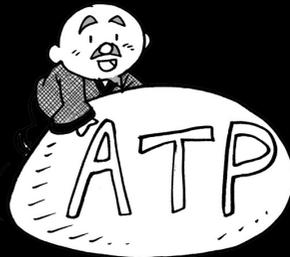
어쨌든 이때 벨크로와 같은 역할로 두 양성자를 묶어주는 것도 역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未知)의 극성입니다. 극성이 없다면 둘이 아닌 하나일 것이며, 거기서는 어떤 힘도 나오지 않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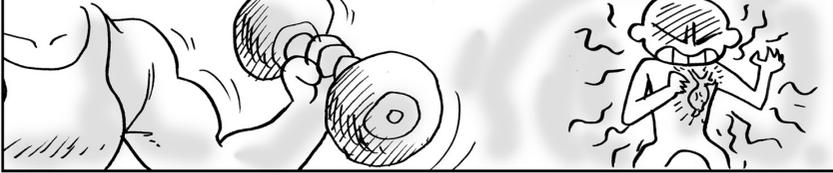
어쨌든 양성자를 묶어주는 이 힘이 너무도 강하기에 그저 '강한 힘(強力)'이라 이름붙인 것 뿐입니다.



그 다음으로, 현대 생물학에서 설명하는 바에 따르면 생체 에너지원이 되는 것은, 미토콘드리아의 아데노신 3인산(Adenosine Triphosphate) 즉, ATP의 형성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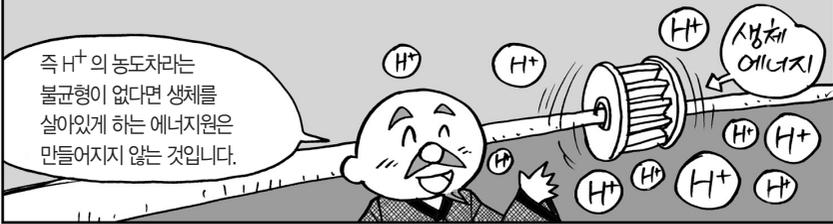


근육운동을 할 때, 감정이 격하여 심장을 두근거리게 할 때, 복잡한 생각을 할 때도 이 ATP에 저장된 에너지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ATP형성의 핵심에는 수소이온(H⁺) 농도 차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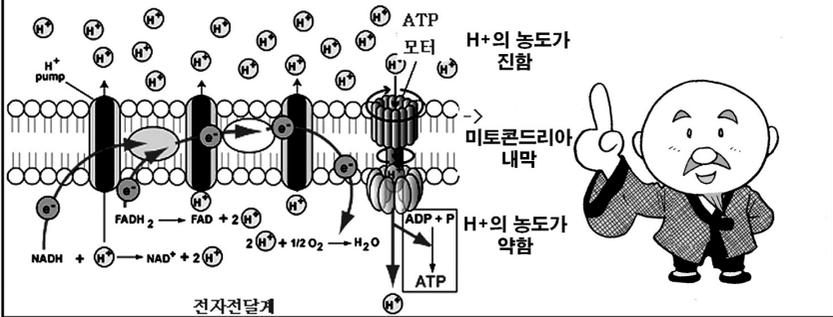


생체에너지 공장이라 불리는 미토콘드리아 내막과 외막 사이에, H⁺ 농도가 달라짐으로써 그것이 내막 안으로 들어오려는 압력이 생기고, 그 힘으로 ATP 모터를 돌려 생체의 에너지원인 ATP를 생성하게 됩니다.

즉 H⁺의 농도차라는 불균형이 없다면 생체를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원은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생체 에너지의 근원인 ATP 생성과정 - 전자전달계를 통해 내막 밖의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지면 내막 안으로 들어오려는 힘이 생겨 그것이 ATP모터를 돌리고, 그에 의해 ATP가 생성됩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생체에너지의 근원은 미지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H⁺이온의 농도 차이가 ADP와 P(인)을 하나로 묶어 ATP를 만들 때, 이들은 그저 미지의 '힘'을 저장했다가 풀어놓는 역할을 할 뿐, ADP나 P 자체가 힘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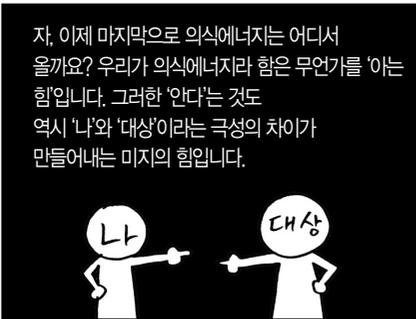
이들은 그저 결합과 분해를 반복하며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풀어놓을 뿐, 진정으로 그 저장되는 에너지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것은 이 무한 우주에 가득 차 있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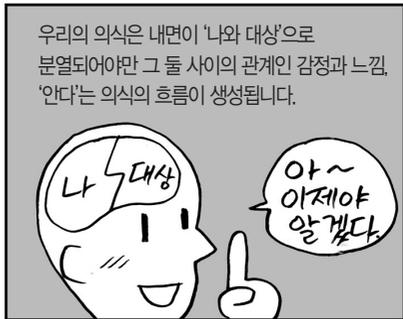
그것이 첨단 과학자들이 언급하기 시작한 제로포인트 에너지(Zero point energy) 또는 진공묘유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떤 형식이든 양극성이나 차이를 만들면 그것을 통해 이 무한 에너지를 꺼내어 쓸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의식에너지는 어디서 올까요? 우리가 의식에너지라 함은 무언가를 '이해'합니다. 그러한 '인다'는 것도 역시 '나와 '대상'이라는 극성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미지의 힘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내면이 '나와 대상'으로 분열되어어만 그 둘 사이의 관계인 감정과 느낌, '인다'는 의식의 흐름이 생성됩니다.



의식에너지는 내면에 쌓인 과거경험의 흔적인 '나'라는 느낌과 현재 일어난 상황인 '대상'이라는 느낌의 차이로 인해 생겨나는 끌림과 밀침을 통해 발현되는 것입니다.



+와 -, 벨크로의 오목과 볼록, H의 많고 적음, 주체와 객체의 분리를 통해 우주에 가득차 있던 미지의 에너지는 현상계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물질, 생명, 의식계의 모든 에너지는 어떠한 불균형이나 극성의 차이를 통해 발현(發現)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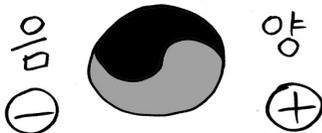
즉, 태극(太極)이 불균형으로 인해 드러내어 이 현상계에 음양으로 '탄생'하게 되면, 끌림과 밀침의 에너지 운동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불균형 또는 극성에 '지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 만재해있는 잠재에지를 발현시킬 뿐이라는 점입니다.



그 발현되는 양상이 물리적이냐, 생물학적이냐, 의식적이냐에 따라 표현 형식은 다르지만 근원은 하나의 에너지일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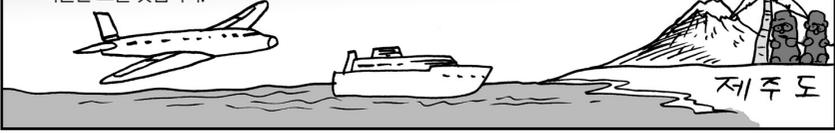
그 잠재된 에너지가 균형 잡혀있어 드러나지 않는 상태가 태극이며, 그것이 불균형으로 인해 드러난 것이 음양입니다. 이렇게 현상계의 모든 에너지 작용 배후에는 음양이라는 극성 또는 불균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보다 한 단계 더 내려와 인간사를 살펴보면, 극성으로 인한 자연스런 에너지 생성이 있다 해도 이 에너지의 모한 운행(妙用)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뜻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에 가려는 뜻을 세운 사람에게만 거기에 갈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그런 뜻이 없는 사람에게서는 제주도로 향하는 뱃길과 하늘길이 보이지 않고 그저 파도치는 물과 바람 부는 하늘만 보일 것입니다.



즉,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쓰는 이에게는 크도의 관찰력이 생겨나 그와 관련된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사업을 확장시키려는 이에게는 수많은 내적인 안테나가 생겨, 관심 없는 이들에게는 감지되지 않은 사업현장의 미세한 차이들이 감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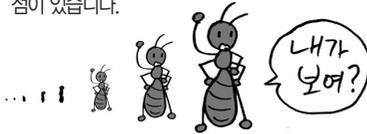
이렇게 무언가를 이루려는 뜻이 강할수록 관찰력도 세밀해져, 사물이 저절로 커져 보이며 그에게 많은 것이 드러나 보여질 것입니다.



이렇게 우주에 의해 그 묘한 작용이 드러나 있다 하더라도 뜻이 없는 이에게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관찰이 가능하도록 사물이 커지는 것은 자연의 흐름이고, 작은 사물이라도 커져 보이도록 하는 것은 의식의 그물을 촘촘하게 하는 사람의 뜻인 것입니다.



목적과 뜻이 없는 마음에는 어떠한 사물이나 사건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물건이 커진 이후에 보이게 된다(物大然後 可觀)는 것은 이렇게 묘한 점이 있습니다.



관찰과 관찰대상은 뜻의 강도에 따라 그 크기가 상대적인 것이지요. 풍자만과는 바로 그런 점을 보여줄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